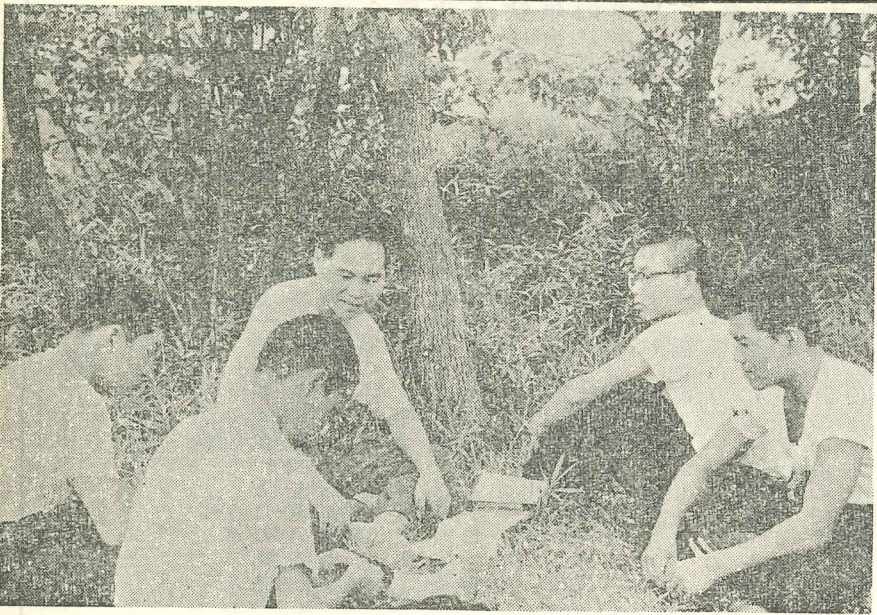


青年運動の反響と展望

青年会は何をしとる！

青年局長 金 元 治

計り知れない。우리에게 주신 이... 青年局長 金元治... 青年運動の反響と展望... 青年会は何をしとる！



それが文章のむづかしさと主... 青年局長 金元治... 青年運動の反響と展望... 青年会は何をしとる！

地方巡りその(三)

関東地方の巻

関東地方連合青年会は、東... 青年局長 金元治... 青年運動の反響と展望... 青年会は何をしとる！

六日(木)、午後六時から、東... 青年局長 金元治... 青年運動の反響と展望... 青年会は何をしとる！

八月二十九日(土)、午後... 青年局長 金元治... 青年運動の反響と展望... 青年会は何をしとる！

十月・カレンダー



十月という、日本ではオリ... 青年局長 金元治... 青年運動の反響と展望... 青年会は何をしとる！

たり得る可能性を持ちつつな... 青年局長 金元治... 青年運動の反響と展望... 青年会は何をしとる！

教界唯一の月刊紙

基督教思想

一冊二二〇〇円 送料二二〇円

発行所 서울鐘路二街九一

大韓基督教書会

十ののりや！ 忠誠を込めて！

一冊二二〇〇円 送料二二〇円

貴金属類製造 宝時計

金泉堂

神戸市長田区池田五ノ一八 電話神戸「7」六八三八番

八月二十九日(土)、午後... 青年局長 金元治... 青年運動の反響と展望... 青年会は何をしとる！

伝道局長 金 得 成

敎會란 어떤 것이냐

改革者 루터의 見解

우리는 사람의 수효에 불과 리거나 부자들의 유흥장에 논이 팔려서는 안된다 오 로지 복음이 올바루 발전 되여 설파되는 곳에 주복 해야한다 자랑하는 것들의 결치장이 사라지고 벌거숭 이 갈을지라도 하나님의말 씀만에 생각을 기우려야한 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 여 자기동작하는 자가 비 록 빈천하여 면걸을 도보 로 가지나 값싼 완행으로 갈지라도 그에게 하나님의 교회가 성립되리라 부하거 나 가난함이 교회의 기반 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만이 교회를 조성한다는것 을 알아야 함것이다	그리스도의 교회다운 오 직 하나의 증거는 하나님 의 말씀을 갈급히찾고 그 말씀에 따라 산다는데 있 다 이모습이 상실될때 인 간들이 안만 교회 교회하 면서 떠돌고 법석거리며자 랑을 해싸도 사실은 윤리 는 팽파리 같을뿐 하등상 판이 없는 것들이다 왜냐 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원천이 되지 않았 기 때문이다 그런자들에게 하나님의말씀이 있는가보라 다시 말하거나와 하나님 의 말씀이 올바르게 들려 지는 것이 교회인 것이다 비록 거기가 외양간 말구	라(太二三章三七절 해설 사람들의 수효가 많으나 적으나 하는 것으로 교회 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 씀에만 귀를 기우리고 조 목하녀 그것을 읽고 거기 서 소리를 듣고 거기의 하여 세상 사물을 판단하 는 사람들만에 교회가 성 립되는줄 안다 왜냐하면하 나의 말씀에 순종한자들 만이 수효가 적거나 천대 를 받거나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 시은산 성과갈 이 혼들림이 없기 때문이다 (시편一二五篇一절해석) 다(시편一二五篇一절해석) 역대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탄생한 말같은것
---	--	---

내 주는 강한성

말찬 루터의 作品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하키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르다
이 찬송시는 구약 시편
四十六에 있는 // 하나님은 우
리의 피난처와 힘이시니 어
디를 때에 큰 도음이 시
로다 // 한 구절에 유래한 것
이다
우리가 라에서는 어떤 압
박을 느낄 때와 용기를 요
구할 때에 이 찬송가가 곧
잘 불리워지고 있는 데 그
역시 인간적 편세나 지위
나 명예나 생명의 위험을
박차고 의지할 바에 의지
한다는 정신에 의한 찬송
이기 때문인 까닭이다
一八七〇년경에 독일전쟁
이 있었는데 그 어느 주
일 오후에 나폴레옹三世가
자기 일선을 시찰하다가 멀
리 독일군 진영에서 // 내주
르며 일떠서도록 하자
오늘날 종교개혁기념집회
에서 이 찬미를 즐겨 브
람스 작곡의 찬송가 제 46
번을 읽고 이 찬송을 불러

가정에서 성경을 읽으려면 (二)

범황 푸스 十二세가 말
한바와같이 어떤 가정에서
는 매일 성경을 읽고있다
이것은 일용할 양식으로 거
룩하신 말씀을 규칙적인 습
관을 들여 복음으로서 우
리가 유혹을 받게 되는 것
이다 부모를과 어린 아이
를이 다같이 극히 자연스
레 하녀 말할 수 있도록 격
려한다 물론 그 토른은가
능한 한 구체적이며 재
미 있게 되어져야 한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토른이
장전된 되도록 미리 주석을
준비하는 것이 좋은 것이
다 그러나 전부 반시간을
초과하지 말 것이다

西南地方会消息

광주장도 ▽ 회계 김범기장노
▽ 절도 · 후생 · 치리부장 박
명준목사 ▽ 교육 · 청년부장한
재수목사 ▽ 부녀부장 정경희
가설을 띄었다

서남지방회는 九월 八일 오
리교회에서 개회 신회장
으로 熊本교회 김덕삼목사

消息
女宣教師총무

력히 추진시키는 데도 막히
 를 가하자는 것이다 우리
 는 어디까지나 자기교회만
 생각하고 내교회 중심만 아
 니라 六十만 교포의 구원
 운동을 위한 사명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자각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총회
 는 지방회의 활동을 강화
 하여야 한다고 절실히 느
 끼는 데 이 지방회 강화책은
 카나다 교회에서 경제적인
 원조를 더 많이 얻어서 가
 니라 각 지방회는 더욱 경
 재적인 자립책을 세워 각
 교회와 신자들에게 자립정
 양을 시켜 더욱 열심
 으로 헌금하는 데로 전진하
 여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총회는 지방회 강화를 위
 하여 모든 힘을 기울려야
 할 것이다 총회중심 중앙집
 권적이어서는 아니 되어서
 방중심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아
 직 자립할 수 없고 원조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때는 언제까지지 자립할
 수 없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우리발로 걸기 위하여 해마
 다 앞으로 전진하자는 것
 이다

지방회를 창립하는

으로 헬름하는 데로 전진하
여야 한다 는 것이다 물론
총회는 지방회 강화를 위
하여 모든 힘을 기울려야
할 것이다 총회 중심 중앙집
권적이 여서는 아니 되며 지
방 중심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아
직 자립할 수 없고 원조가
더 필요 하다고 생각 하는
때는 언제까지든지 자립할
수 없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발로 걸기 위하여 해마
다 앞으로 전진 하자는 것
이다

中部地方會誕生

消息
女宣教師총무
 가나다장로교회서부녀선교
 회총무 M. 회일녀사는
 十월二十일경 일본에도
 착 전국부인전도회총회와제
 二十회총회에 참석하고 총
 회의기독교교육사정을 시찰
 코저 약二주일간 각지방을
 역방할 예정이라 한다

中部地方會誕生
 九월二二~二四일 静岡県
 又温泉에서 静岡縣
 수양회

를 겸한 관동지방회는 증부
 지방회를 창립하는 역사적
 발자취를 때였다 관동·주
 부양지방회에서는 다음과같
 은 신임역원을 선출하였다
 관동지방회
 ▼회장 이인하목사▼부회장
 황재정목사▼서기 맹천
 회목사▼부서기 김성하장로
 ▼회계 한연수장노▼부회계
 최창선집사▼전도부장 심을
 택전도사▼교육부장 강중구
 장노▼청년부장 황의성목사
 ▼부녀부장 강정자전도사▼치
 후생부장 윤관병집사▼치

西南地方会消息

광주장도 ▽ 회계 김범기장노
▽ 절도 · 후생 · 치리부장 박
명준목사 ▽ 교육 · 청년부장한
재수목사 ▽ 부녀부장 정경희
가설을 띄었다

서남지방회는 九월 八일 오
리교회에서 개회 신회장
으로 熊本교회 김덕삼목사

가정에서 성경을 읽으려면 (二)

범황 푸스 十二세가 말
한바와같이 어떤 가정에서
는 매일 성경을 읽고있다
이것은 일용할 양식으로 거
룩하신 말씀을 규칙적인 습
관을 들여 복음으로서 우
리가 유혹을 받게 되는 것
이다 부모를과 어린 아이
를이 다같이 극히 자연스
레 하녀 말할 수 있도록 격
려한다 물론 그 토른은가
능한 한 구체적이며 재
미 있게 되어져야 한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토른이
장전된 되도록 미리 주석을
준비하는 것이 좋은 것이
다 그러나 전부 반시간을
초과하지 말 것이다

지방회를 창립하는

으로 헬름하는 데로 전진하
여야 한다 는 것이다 물론
총회는 지방회 강화를 위
하여 모든 힘을 기울려야
할 것이다 총회 중심 중앙집
권적이 여서는 아니 되며 지
방 중심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아
직 자립할 수 없고 원조가
더 필요 하다고 생각 하는
때는 언제까지든지 자립할
수 없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발로 걸기 위하여 해마
다 앞으로 전진 하자는 것
이다

消息
女宣教師총무

력히 추진시키는 데도 막히
 를 가하자는 것이다 우리
 는 어디까지나 자기교회만
 생각하고 내교회 중심만 아
 니라 六十만 교포의 구원
 운동을 위한 사명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자각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총회
 는 지방회의 활동을 강화
 하여야 한다고 절실히 느
 끼는 데 이 지방회 강화책은
 카나다 교회에서 경제적인
 원조를 더 많이 얻어서 가
 니라 각 지방회는 더욱 경
 재적인 자립책을 세워 각
 교회와 신자들에게 자립정
 양을 시켜 더욱 열심
 으로 헌금하는 데로 전진하
 여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총회는 지방회 강화를 위
 하여 모든 힘을 기울려야
 할 것이다 총회중심 중앙집
 권적이어서는 아니 되어서
 방중심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아
 직 자립할 수 없고 원조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때는 언제까지지 자립할
 수 없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우리발로 걸기 위하여 해마
 다 앞으로 전진하자는 것
 이다

中部地方會誕生

消息
女宣教師총무
 가나다장로교회서부녀선교
 회총무 M. 회일녀사는
 十월二十일경 일본에도
 착 전국부인전도회총회와제
 二十회총회에 참석하고 총
 회의기독교교육사정을 시찰
 코저 약二주일간 각지방을
 역방할 예정이라 한다

中部地方會誕生
 九월二二~二四일 静岡県
 又温泉에서는 静岡縣
 수양회

를 겸한 관동지방회는 증부
 지방회를 창립하는 역사적
 발자취를 때였다 관동·주
 부양지방회에서는 다음과같
 은 신임역원을 선출하였다
 관동지방회
 ▼회장 이인하목사▼부회장
 황재정목사▼서기 맹천
 회목사▼부서기 김성하장로
 ▼회계 한연수장노▼부회계
 최창선집사▼전도부장 심을
 택전도사▼교육부장 강중구
 장노▼청년부장 황의성목사
 ▼부녀부장 강정자전도사▼치
 후생부장 윤관병집사▼치리

信仰生活の盲点

「使命に生きよう」

堺 教 会 鄭 寿 千

やうと秋になりました。夏の間、教熱が横バイをつづけていても、暑いので、諸修養会で、多忙なものと色々弁解を注意しながら、ひたすら秋を待つのが、私共の夏の生活というものが出来る。その秋になって、私共の教会が青年会が、倍加はし、基本的な意味で、教会のあり方に根本的な存在理由を確認するという方法で、学習をつづけて行かねばなるまい。即ち「教会づくり」の学習をせねばなりません。在日韓国教会がその使命に生きる為には、具体的な諸問題の中で、「汝と我」という関係を正常化する事によって、私共の教会が

をゆだねられたことは、教会の首として、キリストが存在しているという事なのですから、キリスト教も何もかもふくめて、キリスト不在たり得る時があり、又ある、こんな時にはやはり使命に生きていない時です。

使命とは、福音を宣教する事です。私共の教会生活は福音を宣教する為存在するのです。福音を宣教する為私共は最善をつくさねばなりません。

宣教は私共の仕事でなく、主イエスの仕事であることを確認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キリストが私共を使用下さることに従って私共が、主の業に参加することが出来るのです。故に「信仰によってキリストがあなたがたの心のうちに住みあなたがたが愛に根ざし愛を基として生活することにより」(エペソ三・一七―一九)福音にふさはしくあるのです。

私共の教会生活が自分のこととあまりに関係しすぎているのではないでしようか？と首を傾げるキリストのことを見て見ましよう。私共の生活の中で、主と共にある時私共は、いきづまりだと思える様な処にも、新しい道が開けて行くのです。

在日韓国教会として、本當に使命に生きて行くことの出来る青年一人一人であることを願ひつつ。

世に書きは偽りなき愛と深い信仰なるかな「玄海の波静まれ」とキリストに在る私達の心は叫び天を仰いで嘆じ地に伏してなく、人ありて人なし、ただ願う真実の人乗松氏の再来を。(田永福)

ある日本人の生涯

韓民族に捧げた乗松氏

日本人で、韓民族を愛し、その生涯を捧げた人のあつたことを聞かない。唯一人、乗松雅休という一人の基督教者がその人であつた。

明治二十九年というから今から六十八年前、日清戦争の終つた翌年であつて韓国人が極度に日本人を恐れ嫌つていた時であつた。

一人の日本人がキリストの愛にほだされ、單身仁川に上陸し、馬の背にゆられつつ京城迄の道を只一言聞き憶えた「ホナ」を馬子に繰り返して来たという。京城に着いても迎える友もなく再び歩を転じて水原にたどり着きし時疲れたの、野宿せんとし身を横たえたのが彼を水原に導いた。水原より八里、三槐という村里に友を得て住い木原の市場に庭を敷き往き交う人々に福音を分ち聖書販売人として点々とキリストの救を伝え、集う人々と礼拝を守り時には三百名の信徒を集めた。

し、馬の背にゆられつつ京城迄の道を只一言聞き憶えた「ホナ」を馬子に繰り返して来たという。京城に着いても迎える友もなく再び歩を転じて水原にたどり着きし時疲れたの、野宿せんとし身を横たえたのが彼を水原に導いた。水原より八里、三槐という村里に友を得て住い木原の市場に庭を敷き往き交う人々に福音を分ち聖書販売人として点々とキリストの救を伝え、集う人々と礼拝を守り時には三百名の信徒を集めた。

に葱を煮つめ何も残るものなしのことと共なきせしとか夫人の死に四人の子供を抱えた韓民族への愛情に生きていた乗松氏に嫁して来たのが当時宮中にて真明皇后の寵を受け現天皇秩父宮、高松宮、三笠宮の生涯に取り上げられた。役を果せし赤十字看護婦長、加藤まさめ氏であつた。新妻を迎えし乗松氏の伝道生活は尚厳しく一途キリストの愛とその真実と韓国人への深き愛情に溢れていた「聖者さん」の通り名にて彼を知るすべての人に慕われ、日本人の外国伝道第一号という歴史的な伝道者なるにもただ秘かに谷間の百合の如く香わしく韓国人を愛し続ける事によりその生涯を全うした。大正十年(一九二一年)静かにその苦難の生涯を終え慕う天の御国へ歸り行つた。告別の式に金太熙氏の声涙降る弔辞は会葬を涙の庭に換えた。「私は朝鮮人として生まれましたが乗松先生ほどに朝鮮人を愛することが出来ませんでした」となきずれしとのことであつた。

二十数年前、私が水原に伝道の足を留めた時乗松氏によって伝道された「集い」を数カ所訪問した事があり、その信者である医師申益益氏の案内で水原郊外の乗松氏の墓に詣でた事があつた。大きな石碑に「朝鮮人と共になき共に喜び朝鮮の敵しい風雪にその命を縮めた一人の日本人」という意味の碑文が刻まれてあつたことを思い出す。今日迄、私が韓民族と共に歴史の中に生きて来る事が出来たのにも乗松氏の真実と貴い信仰が大きな励ましとなつたことを否めない。

「聖書研究」
めづらしいこと
使徒行伝 一七・一六―二一
す(二〇節)
さて今日この日本にあつて私達は何を知りたがっているのでしょうか。日本全体は秋のオリンピックに追いまわされてるやうで、個人の生活まで、オリンピックによって規定されているという始末です。これが終つた後の虚脱感というものはどうなることやら、いろいろな心配までしたくなつてきます。

神学校を出て、はやはやの私が熊本教会に赴任して満九年になった。その間なんどかさじを投げようかと思つた事か。けれども私は私を常に力づけ支えてくれた。全く不思議な事である。この小さな僕を本當に赤子を瞬時も手離さない慈母の如く、よく支えて

なら大成功だと思つてゐる。(1)伝道の方法 地方の伝道には、特色がある。とにかく心を許して話を聞こうとするまでに五年はかかる。他所の者のいう事をなかなか聞いてくれないし信用しない。だから伝道が実を結ぶ為には、まず信用を得る事が大事である。これはなかなか容易な事ではない。この事は伝道者だけ

来には必ず実現する事を信じてゐる。私達の共通の欠点であるが、依存心が強く、主体性が無いことは、教会自立の問題にも、大きく影響してゐる。早く経済的にも自立したい。それでこそ名実共に生きたキリストの教会になるのだ。青年達のこと。今中学生を合せて、男女二十名の数をめつてゐる。しかし何時も考え事だが、今の青年達は本気で信じてゐる生活と、或いは生命としての信仰を把握しているやうには思えない。その理由として礼拝出席にも奉仕、活動にも真面目さ、責任感が本當であるなら、私達の教会の将来は暗い。これは牧師一人だけの責任なのだろうか。お互いに真剣に考えて見たいものである。皆さん、熊本教会の為に本當に熱をこめて祈つて下さい。

二十数年前、私が水原に伝道の足を留めた時乗松氏によって伝道された「集い」を数カ所訪問した事があり、その信者である医師申益益氏の案内で水原郊外の乗松氏の墓に詣でた事があつた。大きな石碑に「朝鮮人と共になき共に喜び朝鮮の敵しい風雪にその命を縮めた一人の日本人」という意味の碑文が刻まれてあつたことを思い出す。今日迄、私が韓民族と共に歴史の中に生きて来る事が出来たのにも乗松氏の真実と貴い信仰が大きな励ましとなつたことを否めない。

「聖書研究」
めづらしいこと
使徒行伝 一七・一六―二一
す(二〇節)
さて今日この日本にあつて私達は何を知りたがっているのでしょうか。日本全体は秋のオリンピックに追いまわされてるやうで、個人の生活まで、オリンピックによって規定されているという始末です。これが終つた後の虚脱感というものはどうなることやら、いろいろな心配までしたくなつてきます。

聖書の言は今更いまでもなく他の諸々の書物のそれにならなかつて、私達に真理を伝えてくれるものですが、読めば読む程味があつて、決して抽象的ではなくて写実的な現実的なものだと思います。なぜならば巧に私達の姿を写しハツとさせる力を持つてゐるからです。特に私はこの聖句にコッソリとやられました。今日も別に交りばえのしない生活の繰返しの中で「何か、いいことないか」とつい誰かにききたくなる私達ですが、真珠の首飾りをしながら特売のイミテーションを買つたやうなぶざまな格好はお互にしたくないものです。

「捜しさえすれば見いだせます」(二七節)という素晴らしい宝さがしの招待状をいただいているのですから。(以上) 申英子

教会めぐり

(1)

熊本教会の巻

下さつた主に感謝するのみである。先日、聖餐器具が二十人分では足りないで、四十人分の豪華なものを仕入れた。これからの目標はこの数が満たされる事である。熊本には僑胞の密度が低い。子供を入れて千人内外である。だから常餐会員五十名の教会になる

でなく、教会員みんなに求められる事である。私達はこれが為に主に召され信仰を与えられてゐるのである。ムードはいつた「一人十人の仕事をするよりも、十人一人の仕事をするように訓練する方がより良い」と。これは真理であると思ふ。

(2)説教について キリスト教の福音は「十字架と復活」にその中心的メッセージがある。今年はいよいよ牧師館を建てる計画を始めた。近き将

に、日曜は教会に出かける日ではなく「教会に帰ってくる日」であること。そこに「神の家」が形成される。

(4)教会の自立について この教会は、牧師の全生活を支えてゐない。牧師もまだない。けれども信者達はよく奉仕をし、家族的な暖かさと主にある愛にかたよ結ばれてゐる。今年はいよいよ牧師館を建てる計画を始めた。近き将

に、日曜は教会に出かける日ではなく「教会に帰ってくる日」であること。そこに「神の家」が形成される。

(4)教会の自立について この教会は、牧師の全生活を支えてゐない。牧師もまだない。けれども信者達はよく奉仕をし、家族的な暖かさと主にある愛にかたよ結ばれてゐる。今年はいよいよ牧師館を建てる計画を始めた。近き将